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실무장들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대응 활동결과를 점검하고 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대응 논리 강화 집중

도, 부처 별 활동결과 점검... 내달까지 부처활동 집중 새민금·수소특화 특례 등 쟁점, 지휘부에서 설명 나서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대응 활동결과를 점검하며 향후 대응 논리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와 도 주요 간부진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발표했던 특별법 전부개정안 194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부처활동 등 상황 분석 점검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도의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무조정실 제도개선 과제 의견 조희 기간에 맞춰 집중적인 논리 개발은 물론 부처의 공식적인 답변이 긍정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시기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똑같은 대응 전략으로 부처 활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부처의 부정적 사유와 검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강화된 논리와 전략을 먼저 수립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

김 지사와 간부진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권한 요구보다는 전북이 가진 강점 여건 제시를 통해 특화사업 발전과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7월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 입장 변화의 분수령이 될 예정이다"며 "테스트베드 한시 기간 제안 등 부처 설득 논리를 보강해 연내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장들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도는 강원특별법 특례에서도 빠지며 최대 난항이 예상됐던 케이팍국제학교 특례와 관련 교육부 반응이 부정적에서 마운으로 태도 전환이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보완 방향까지 언급되는 등 일부 특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는 7월말까지는 부처활동을 집중

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으로, 핵심 특례 중 이민 관련 특례, 새민금 관련 특례, 수소특화단지 특례 등 쟁점이 되는 특례에 대해서는 김 지사를 중심으로 지휘부에서 부처 장·차관을 대상으로 설명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 13일이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개최될 예정으로 도는 지원위를 통해 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울러 국조실에 총리 말씀을 직접 전달하고 핵심 특례 조정을 위한 실무 협의회 개최를 요청해 특별법 전부개정안 협의·조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관 상임위 별로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부처 협의는 물론 국회 단계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김수용 의원이 국토부 관계자들과 소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토론회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으며, 7월 26일에는 한병도 정운천 의원 주최로 국회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기간 5년으로 연장

양해석 도의원 대표발의 개정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양해석 의원(남원 2·시진)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계약일로부터 3년(대행자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5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개정안은 또한 대행자 지정방법 등도 보완해 시장·군수가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저하 등 대행자 지정신청 기피로 발생 하는 업무 공백에 따른 도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으며, 전라북도 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양해석 의원은 "기존의 전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이 발급 대행업체의 업무 연속성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13개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묶음으로써 행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새로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우림중 학생 대상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2023년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열었다.

이번 제5회 청소년 모의의회에는 전주우림중학교 1~3학년 2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각각 의장, 의원,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 '의사보고', '3분 자유발언', '조례안 제정' 등의 순서로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김희수(전주6)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 전라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이남호 신임 전북연구원장 취임

전북연구원 제9대 이남호 원장(시진)은 26일 26일 전북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6월 26일부터 3년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5월 17일 전북연구원 이사회에서 원장후보로 선임된 후 21일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했다.

이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건강한 Think, 더 특별한 전북'을 전북연구원의 경영 비전으로 제시하고, 전북의 중장기 미래 비전 설계와 전북을 대표하는 'Only One Brand'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남호 원장은 전주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및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전라북도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제17대 전북대학교 총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김재훈 기자



이낙연, 당분간 '강연 정치' 나설 듯

(전 국무총리)

내달부터 전국 대학가 돌며 강연 나서 1년간 연구해 온 외교 정책 등 이야기 할 듯尹정부 국정운영 비판... 대안 제시에 주력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1년 만에 귀국해 "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예고했다.

당분간은 민주당 현안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이재명 체제' 흔들기로 해석돼 당 분열을 부추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강연 정치'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점쳐진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가를 돌며 강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책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 연구해 온 외교 정책과 남북 관계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가 다음달부터 전국 대학가를 돌며 강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4일 인천공항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그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대한민국은 여기저기가 무너지고 있다"며 "수출이 위축되고 경제가 휘청거린다. 민주주의도, 복지도 뒷걸음질이다. 대외 관계에 힘이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며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기를 바란다" 대외 관계를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 및 현충원, 5.18 묘역 참배 등 일정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정해져 있는 본인의 일정이나 스케줄은 전혀 없다"며 "일단 한반도의 미래와 생존 전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잠깐하면서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정치 일선으로의 복귀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전 대표가 귀국갈에서 "뜻 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하게 발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다.

실제로 그의 이전 정치 행보와 스타일로 미뤄 짐작할 때 공형에서는 인사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나아가 당 원로들처럼

낙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윤 의원은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감정이 있지 않겠나 싶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행보는 민주당을 어떻게 민주당답게 또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맞춰질 것"이라며 "단순히 어떤 계파의 수장 또는 비명계, 이런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이 과연 무엇이고 다시 국민 눈높이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민 속의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 것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으로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낙연 역할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친낙계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 전 대표로 인해 당 내용이 불거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이재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영선의 아침저녁에서 이 대표 대안으로 이 전 대표가 거론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민주당의 승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각자의 행동 방식과 정치 양상, 정치적 행동에 의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라며 "서로가 대안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경민 전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중배의 시사선종에 출연해 "지금까지의 이 전 대표의 이미지가 대중을 수감해 가지고 오래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다"며 "북도에서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문제, 민주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내외의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도내 기초의원들 '상복 터졌네?'

환경부 군산시의원, 지방의정대상 입법 부문 기초의회 '대상'

환경부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2동)이 지난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중 기초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주)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은 입법활동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누어 49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환경부 의원은 제4~7대 군산시의회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제9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유발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기술혁신의 시대, 친환경 첨단 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대안과 자치법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군산시 플리마켓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등을 작년부부터 올해 3월까지

한선미 정읍시의원, 대한민국 인물대상 지자체 의정 부문 '대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 한선미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인물 대상은 한국인물사 연구원, 교통교육복지연구원 등의 주관으로 의정, 교육, 문화예술 등 각 사회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도의 정신과 리더십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한선미 의원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간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내 유류 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 허가를 제안하며, 정읍시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립 촉구, 영유아 발달장애 아동에 차별 없는 보육 기회 제공 등을 역설하였고,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 정착 지원 조례,

순차적으로 발의해, 플리마켓 산업에 대한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결과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최근 인보 측면에서도 플리마켓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돼 미래산업 선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 조례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환경자산을 지키고 후손들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산시민과 함께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차전지 순환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드론·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친환경적이면서 앞선 기술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입법 지원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의원은 지난달에도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에서 뛰어난 지방정치 활동으로 지방의원 부문 미래개척 분야 전국단위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 발의로 채택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 직접 확인 점검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선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과는 자제로 소통하며, 정읍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